

2025.12
이슈포커스 2025-04호(2)

Fisheries
Economic
Institute

수산 이슈포커스

2026년 경제 및 금융 이슈

| 강인순 책임연구원

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수산경제연구원





수산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
이슈포커스를 발간·배포하고 있습니다.

수산 이슈포커스

Topic

■ 2026년 경제 및 금융 이슈 3
| 강 인 순 책임연구원



2026년 경제 및 금융 이슈

강 인 순 책임연구원
(insoonkang@suhyup.co.kr)

목 차

요약	5
I. 서론	8
II. 대내외 경제 동향 및 주요이슈	9
III. 금융시장 동향 및 이슈	17
IV. 주요리스크 및 시사점	21

요약

■ 대내외 경제 동향 및 주요이슈

○ 세계 경제

- 세계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잠재성장률도 점차 후퇴하고 있음
- 인구구조의 변화 및 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진 고금리정책은 세계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음
- 단, 미국을 중심으로 팬데믹 이후 지속되었던 고금리정책을 종료하고 금리인하 기조로의 변경이 예상되어, 이에 따른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
- 미국의 상호관세정책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심화되었으며,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
-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전세계 교역은 과거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었음
-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음
- '26년 글로벌 경제는 통화정책 완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기대되지만,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다시 긴축적으로 재선회할 가능성이 있음

○ 국내경제

-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, '30년대에 이르러서는 1%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노동시간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
- 가계부채의 확대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
-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, '26년에도 부진이 예상
- 반면 부동산 가격은 '25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하였으며,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
-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간 주택가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'25년 1월~1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
-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
-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, 우리나라 경제에 IT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함

📌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이슈

○ 금융시장

- 글로벌 증시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상호관세 여파로 4월 급락세를 보였으나,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완화와 AI산업발전,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반등하였음
- 국내증시의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더불어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완화로 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
- 증시 호황과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중이 증가하였으며, 조정국면에서 미국의 주식시장(나스닥)과의 동조화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
-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액도 급격하게 상승
- 대내외 불확실성과 달러수요과잉으로 인하여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
- 한미 금리차 역전의 지속 또한 원화 약세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
- 높은 환율의 지속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,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📌 주요리스크 및 시사점

○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 확대

-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완화정도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것임
-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○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실물전이

- '26년 세계경제에서 보호무역기조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
-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확대는 실물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○ AI산업의 실물·금융 간 불균형

- AI산업의 실물과 금융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- 이와 같은 우려의 현실화로 인하여 AI산업이 둔화될 경우, 국내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전이될 수 있음

- 부동산발 국내경기 둔화
 -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,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부동산 가격의 지역 간 양극화 심화는 가계부채 확대를 유발하여 가계소비지출 하락, 건설투자 부진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
- 금융산업에 대한 시사점
 -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 필요
 - 기존 부동산 관련 대출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
 - 가계대출 부실대응 필요

I 서론

배경 및 목적

- 팬데믹 기간 확장적 통화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속된 고금리 기조는 최근 수년간의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통화정책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여러 방면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
- 하지만 실물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AI 산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전 세계 자산시장은 호황을 기록하고 있음
-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, 구조적 저성장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
- 산업 간 양극화 역시 심화되며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음
-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가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며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을 강화하고 있음
- IT·반도체 중심의 성장 편중이 지속되며 산업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
- 부동산 PF 부실과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
-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26년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을 검토하고, 그 원인과 파급경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Ⅱ 대내외 경제 동향 및 주요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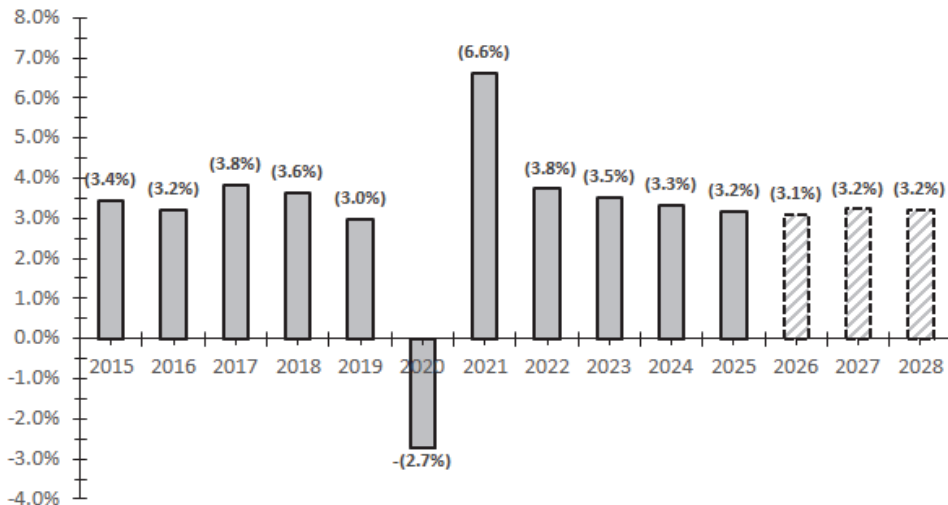
1. 세계 경제 동향 및 주요이슈

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률 회복이 기대되나, 미국발 관세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인플레이션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

▶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심화 및 통화정책 기조 변화

- 세계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잠재성장률도 점차 후퇴하고 있음
 - 세계경제성장률은 '22년 3.8% → '23년 3.5%, '24년 3.3%, → '25년 3.2%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
 - 글로벌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3.5% 내외로 평가되었으나, 현재는 3% 초반 수준으로 평가됨

【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】



주 : '25년 이후는 전망치

자료 :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, IMF

- 인구구조의 변화 및 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진 고금리정책은 세계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음
 -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총요소생산성¹⁾, 자본투자, 노동력 등이 있음
 - 따라서,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, 기술혁신의 정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
 -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, 소비위축 및 투자부진이 지속될 수 있으며,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- 단, 미국을 중심으로 팬데믹 이후 지속되었던 고금리정책을 종료하고 금리인하 기조로의 변경이 예상되어, 이에 따른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
 -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이자비용 감소를 통한 소비활성화, 기업투자 확대 등 실물경제 부양을 도모할 수 있음
 - 하지만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여력은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됨
 - 미국, 유로, 영국 등 주요 중앙은행에서도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,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

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】

구 분	주요내용
'23.8월 ~ '24.8월	금리동결, 양적긴축(QT) 지속
'24.9월 ~ '25.12월	6차례 금리인하(5.25~5.50% → 3.50~3.75%)
'25.12월 ~	양적긴축(QT) 종료

자료 : <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>

1) 기술진보가 총요소생산성(TFP)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

■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

- 미국의 상호관세정책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심화되었으며,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
 - 트럼프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산업보호를 위하여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및 양자협상 수행
 - 트럼프정부는 무역적자 폭이 큰 상대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며, 이후 자국투자 확대 및 재화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 재협상
-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전세계 교역은 과거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었음
 -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표된 직후 '25년 4월 발표한 IMF의 경제전망에서는 '26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이전 보고서 대비 $\Delta 0.3\%p$, 교역량은 $\Delta 0.8\%p$ 하향전망 하였음

【 IMF '26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량 전망 】

(단위: %)

구분	'25년 1월 보고서	4월 보고서	7월 보고서	10월 보고서
글로벌 성장률	3.3	3.0	3.1	3.1
교역량 증감률	3.3	2.5	1.9	2.3

자료 : IMF Economic Outlook(2025)

-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음
 -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금리 인하를 위한 필수요건이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음
- '26년 글로벌 경제는 통화정책 완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기대되지만,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다시 긴축적으로 재선회할 가능성이 있음

2. 국내경제 동향 및 주요이슈

국내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하락과 가계부채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취약성을 배경으로 건설업 부진 하에서의 부동산 양극화,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호황 등 전반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

▶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기부진

-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, '30년대에 이르러서는 1%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, 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활용될 때의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함
 -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정체 또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노동,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
 - 한국은행에서는 노동시간 감소 및 고용률 하락, 투자부진 등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지목하였음

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 】

(단위: %)

구 분	'25~29년	'30~34년	'35~39년	'40~44년	'45~49년
잠재성장률 전망치	1.8	1.3	1.1	0.7	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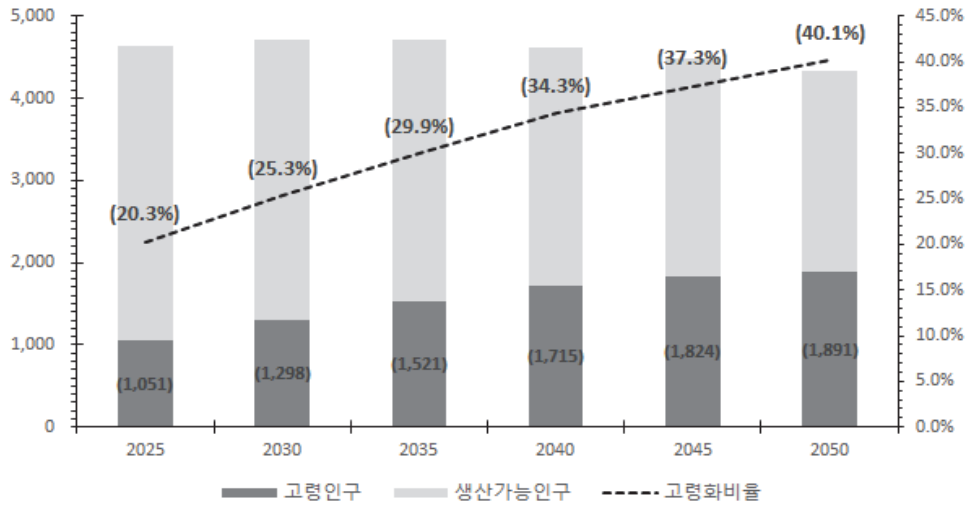
자료: “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”, 한국은행(2024)

- 노동시간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
 -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²⁾의 감소, 노동생산성 하락 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
 - '25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은 20.3%로 예상되며, 2036년에는 3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2) 만 15세 ~ 64세의 인구를 의미함

【 우리나라 고령인구 및 고령화비율 추이 】

(단위: 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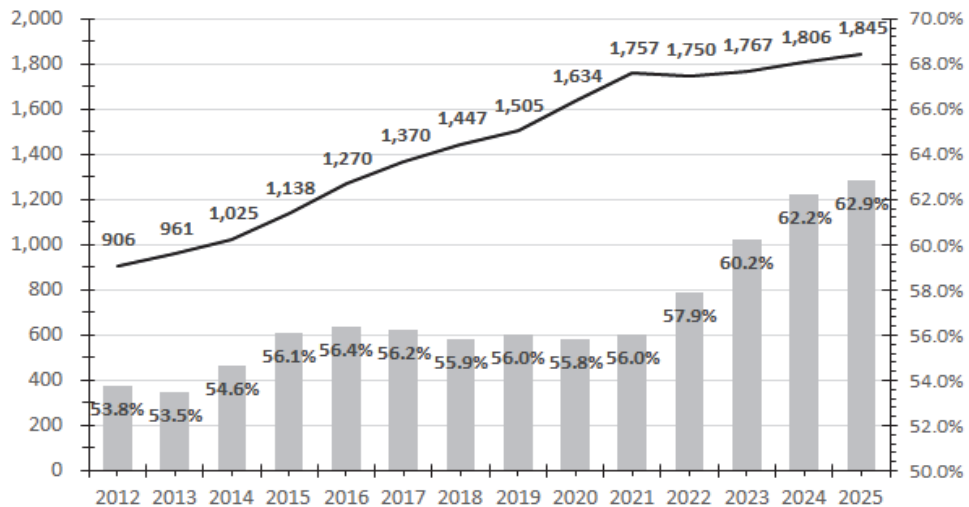
자료: “장래인구추계”, 국가데이터처

○ 가계부채의 확대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

- '25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'12년 약 103.7% 증가하였으며,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동기간 53.8%에서 62.9%로 9.1%p 확대되었음

【 가계부채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비중 】

(단위: 조원)



자료: 경제통계시스템(ECOS), 한국은행

- 가계의 소비가 아닌 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,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확대는 우리나라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- 한국은행 보고서³⁾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리금부담(DSR)은 최근 10년 간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게 상승하였고, 이것이 민간소비의 구조적 둔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음

■ 건설투자 부진과 부동산가격 상승

-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, '26년에도 부진이 예상
 -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.4%⁴⁾로 '17년(16.6%)대비 약 △5.3%p 감소하였으며, '26년에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
 -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4년 연속 음의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함

【 국내총생산과 건설투자 】

(단위: %)

구 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(e)
국내총생산	4.6	2.7	1.6	2.0	1.0
건설투자	△0.2	△3.5	△0.5	△3.3	△8.7
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	0.0	△0.5	△0.1	△0.5	△1.1

자료 : 경제통계시스템(ECOS), 한국은행
 주1: 국내총생산,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증감률
 주2: '25년 값은 한국은행 경제전망(11월) 전망치 등을 사용

- 반면 부동산 가격은 '25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하였으며,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
 - '25년 11월 현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'25년 1월대비 0.9% 상승하였으며,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.0% 상승하였음
 -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월대비 6.5%상승하였고,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.0% 상승하였음

3) 한국은행(2025)
 4) 한국은행 경제전망(2025.11) 전망치 적용

- 아파트 실거래가의 경우 서울, 경기, 세종, 울산 등을 제외한 타지역은 작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간 주택가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지역 간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, 이는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건설투자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임

▶ 반도체산업의 호황 등 성장동력의 편중

- '25년 1월~1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
 - '25년 1월~11월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수출액은 6,402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7,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
 - 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증가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'25년 11월 현재 1,52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⁵⁾를 기록하고 있음
-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
 - '24년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.8%로 나타났으나, '25년 1~11월 동안 평균적으로 23.9%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반면, 동기간 반도체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수출액⁶⁾은 △1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5) 종전 최대치는 '24년으로 1,419억달러였으며 '25년 11월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

6) '24년 1~11월 반도체산업 제외 수출액은 4,948억 달러였으나, '25년 1~11월 4,875억 달러로 나타남

【 총수출 및 반도체 수출 】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'24년	'25년 상반기 (1~6월)	'25년 하반기 (7~11월)	'25년 (1~11월)
총수출	6,838	3,348	3,054	6,402
반도체	1,419	773	794	1,527
	(20.8)	(21.9)	(26.0)	(23.9)
반도체 외	5,419	2,615	2,260	4,875
	(79.2)	(78.1)	(74.0)	(76.1)

자료 : 수출입동향정보통신산업(ICT) 수출입동향, 산업통상자원부

-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, 우리나라 경제에 AI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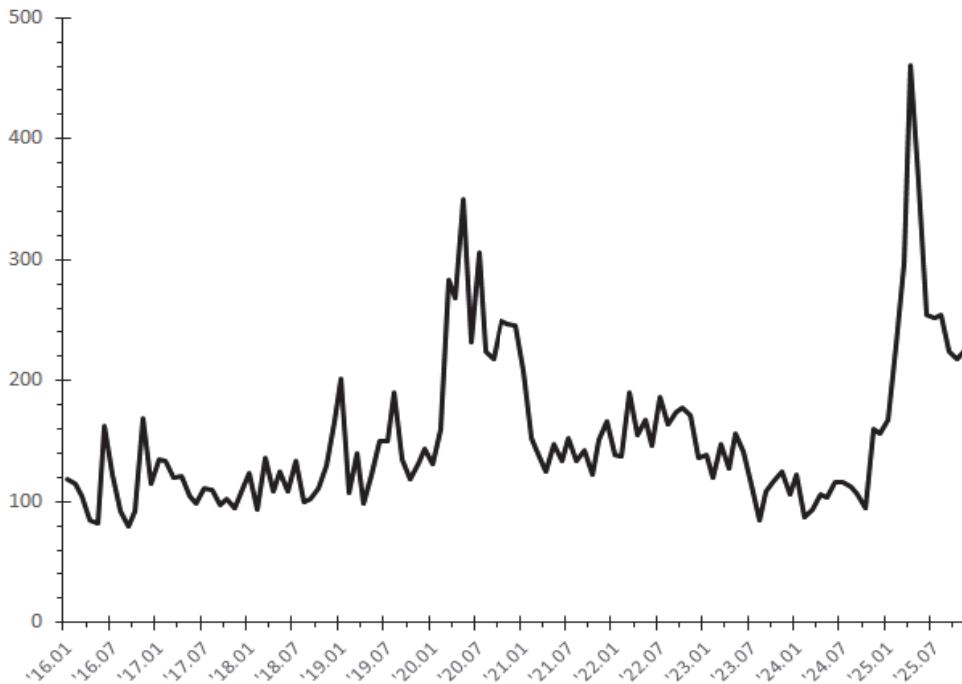
Ⅲ 금융시장 동향 및 이슈

국내증시는 AI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례없는 호황을 경험하였으나, 환율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과 투자과열로 인한 변동성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

▶ AI 주도의 자산시장 호황

- 글로벌 증시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상호관세 여파로 4월 급락세를 보였으나,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완화와 AI산업발전,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반등하였음
- 무역정책으로 인한 긴장감이 완화되고 AI 및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⁷⁾

【 미국 정책 불확실성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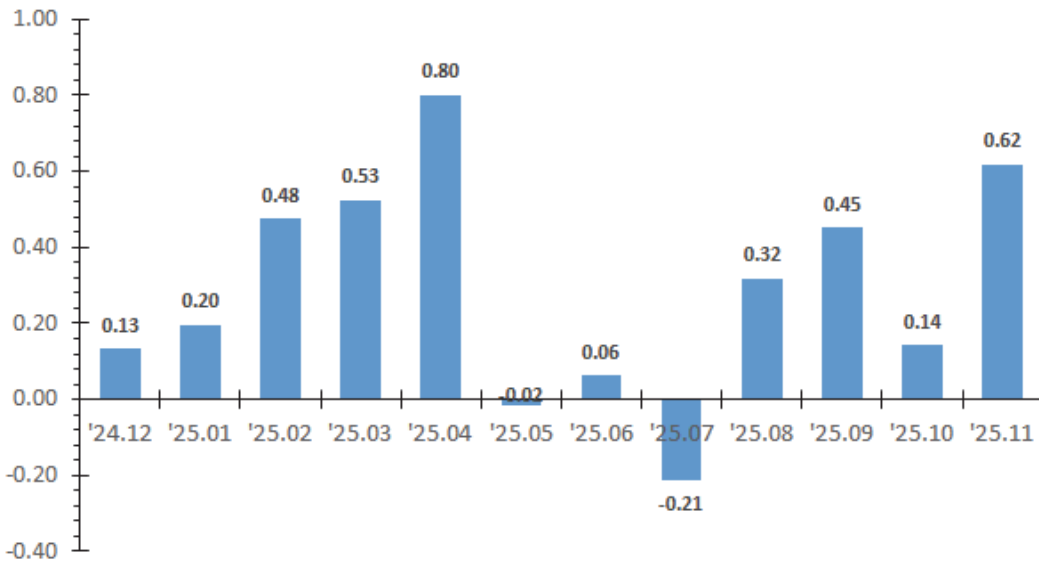
자료 : Policy Uncertainty,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

7) 다우존스지수는 저점대비 약 27.5%, 나스닥지수는 57.2% 상승하였음

- 국내증시의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더불어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완화로 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
 - '25년초 2,600선을 형성하던 KOSPI 지수는 4월 2,300선 아래까지 하락 하였으나, 미국 증시의 호조,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월 사상 최초 4,000포인트를 돌파하였음
 -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가지수는 200%가 넘는 상승률⁸⁾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관련 주식이 국내 주가지수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

- 증시 호황과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중이 증가하였으며, 조정국면에서 미국의 주식시장(나스닥)과의 동조화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
 - 연중 KOSPI 시가총액 중 28.2%까지 축소되었던 외국인 보유비중은 32.4%까지 증가하여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
 - 코스피와 나스닥 간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조정국면인 '25년 4월과 11월에 높게 나타났음

【 코스피, 나스닥지수 수익률의 월별 상관관계 】



주 : 일별 종가기준 수익률을 사용하여 산출

자료: Data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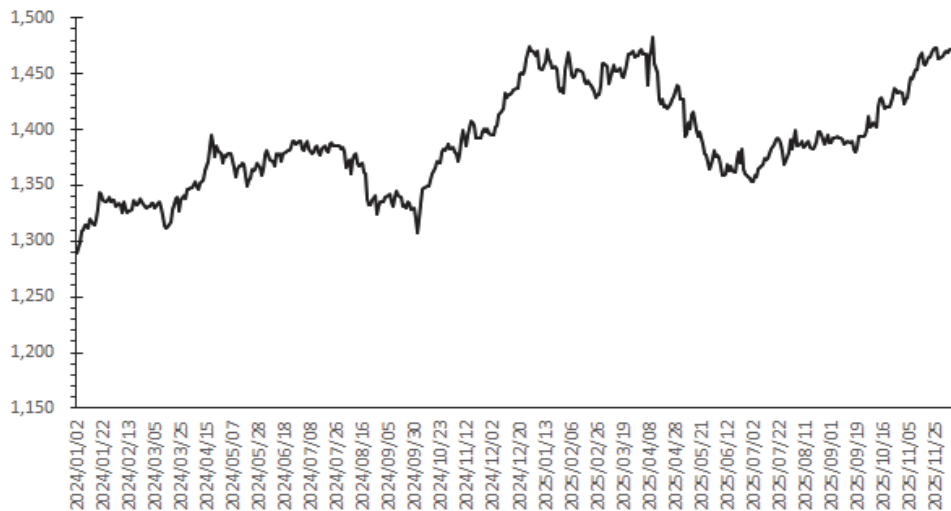
8) KRX반도체지수 기준

-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액도 급격하게 상승
 - '25년 1월 55.6조원 규모였던 투자자 예탁금은 '25년 11월말 현재 77.9조원으로 약 40.2% 증가하였으며, 신용융자 잔액은 26.4조원으로 동기간 57.0% 증가하였음
 - 신용융자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으로 신용융자 잔액은 시장과열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
 - 신용융자 잔액이 높을 경우, 추가하락 시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음

원화약세와 환율상승

- 대내외 불확실성과 달러수요과잉으로 인하여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'24년 12월부터 '25년 4월까지 1,450원 이상을 상승하였던 원/달러 환율은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1,300원대로 하락하였으나, '25년 4분기에 다시 1,400원 후반대까지 상승하였음
 - '25년 하반기 원/달러 환율의 상승원인은 기업·개인의 달러수요과잉과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, 대미투자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소진 우려 등이 있음

【 일별 원달러 환율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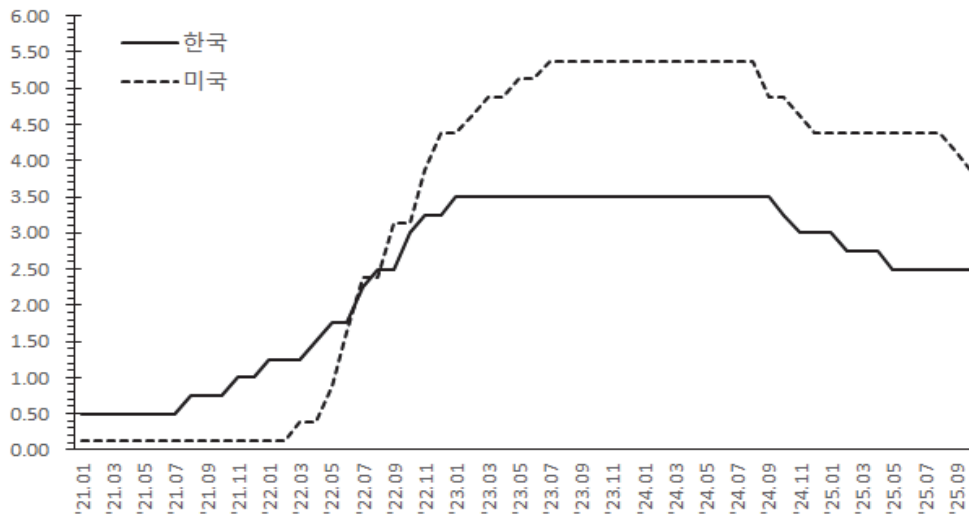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○ 한미 금리차 역전의 지속 또한 원화 약세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

- 한미금리차는 '22년 9월 미국 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역전되어온 상황임
-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경우, 원화자산 투자의 매력에 달러자산 투자보다 낮아짐으로 인하여 원화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
- 따라서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어있는 경우 달러화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원/달러 환율은 상승하며, 이것이 최근 원/달러 환율이 팬데믹 기간⁹⁾보다 높은 수준의 값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임

【 한국, 미국 정책금리 추이 】
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주 : 한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, 미국은 연준금리의 중간값으로 제시하였음

- 높은 환율의 지속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,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9) 1,100원을 유지하였음

IV 주요리스크 및 시사점

'26년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, 시산업에 대한 고평가, 부동산발 국내경기 둔화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

1. 주요 리스크 및 파급경로

▶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확대

-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완화정도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것임
 -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, 주요국의 금리인하 속도는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음
 - 금리인하 속도의 하락은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실물경기 개선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-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 -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리인상에 어려움이 있으며, 한미 금리차의 축소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
 -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의 하락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우리나라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속도에 따라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모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▶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실물전이

- '26년 세계경제에서 보호무역기조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
 - 미국과 중국의 관세정책 외에도 유럽연합,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공급망의 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있음
-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확대는 실물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확대될 경우, 기업은 수요예측이 어려워지며 정책의 잦은 변화로 투자 및 생산 등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- 기업의 생산감소와 교역량 하락은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내수경제 소비위축에 영향을 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
 -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

▶ AI산업의 실물금융 간 불균형

- AI산업의 실물과 금융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 - AI산업에 대한 기대는 AI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확대에 기인하며,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음
 - 하지만, AI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고 닷컴버블과 유사한 형태라는 관점도 존재하여, 시장의 과잉투자가 경계되는 시점임
 - AI산업을 통한 생산성확대, 수익성 등이 시장의 기대를 하회할 경우, AI중심의 산업 체계가 둔화될 수 있음

- 이와 같은 우려의 현실화로 인하여 AI산업이 둔화될 경우, 국내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전이될 수 있음
 - AI산업의 둔화는 반도체수요를 감소시켜 국내 수출이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음¹⁰⁾
 - 국내 증시의 경우, 반도체 관련산업의 비중이 높고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아 반도체 기업의 실적악화는 증시악화 및 외화유출을 유발할 수 있음

▶ 부동산발 국내경기 둔화

-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,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신규공급물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
 -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, 건설업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
- 부동산 가격의 지역 간 양극화 심화는 가계부채 확대를 유발하여 가계소비지출 하락, 건설투자 부진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
 -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로 인하여 수도권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내수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
 -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사업성의 악화와 더불어 PF대출의 건전성 하락, 건설투자 감소 등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음

10)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반도체 경기둔화 시, '26년의 경제성장률이 $\Delta 0.1\%p$, '27년의 경제성장률이 $\Delta 0.3\%p$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되었음

2. 금융산업에 대한 시사점

▶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 필요

-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극복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하여 자산운용 측면에서 해외자산 투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
- 최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,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짐에 따라 해외자산투자의 경우는 국내투자보다 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있음
- 위험자산투자 시 자산변동성 및 외환리스크를 고려한 투자결정이 필요

▶ 기존 부동산 관련 대출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

- 건설업 투자부진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로 인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실적부진 및 유동성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
- 건설업 PF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이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경기 위축이 기관의 수익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
- 부동산리스크가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

▶ 가계대출 부실 대응 필요

-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더불어 주식시장 신용잔고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여력이 점차 악화
-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더욱 악화시켜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자산시장 및 금리에 대한 가계대출의 취약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함

【참고문헌】

문헌자료

이은경 외(2024), “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”, 「BOK 이슈노트」, 한국은행, 제2024-33호, pp.1-22.

김지연 외(2025), “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”, 한국개발연구원, pp.41-50.

김찬우 외(2025), “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”, 한국은행, pp.63-75.

한국은행 조사총괄팀, “경제전망보고서(2025년 2월)”, 한국은행

_____ , “경제전망보고서(2025년 5월)”, 한국은행

_____ , “경제전망보고서(2025년 8월)”, 한국은행

_____ , “경제전망보고서(2025년 11월)”, 한국은행

IMF Economic Outlook(2025), “World Economic Outlook”, IMF, 2025.1.

_____ , “World Economic Outlook”, IMF, 2025.4.

_____ , “World Economic Outlook”, IMF, 2025.7.

_____ , “World Economic Outlook”, IMF, 2025.10.

인터넷사이트

국가데이터처 통계포털(<http://kosis.kr>)

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<http://ecos.bok.or.kr>)

한국은행 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>)

Federal Reserve Economic Data(<https://fred.stlouisfed.org>)

IMF 홈페이지(<https://www.imf.org>)

보도자료

산업통상자원부, “2025년 10월 정보통신산업(ICT) 수출입 동향”

산업통상자원부, “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”

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5-04호(2)

발행처	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
발행인	회장 노동진
편집인	수산경제연구원장 이종화
수산경제연구원 연락처	전화 (02) 2240-0416 팩스 (02) 2240-0420 홈페이지 http://fei.suhyup.co.kr
인쇄처	세일포커스(주) (02)2275-6894
발행일	2025. 12


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수산경제연구원